

女大生들의 生活韓服 實用化를 위한 디자인 研究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김 장 향*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한복의 위치
 - 2. 깃의 종류
- III. 기성디자인 분석
- IV. 한복디자인 선호도 조사
- V. 연구결과 및 논의
- VI.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민속복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 내재된 의복이다. 우리는 한 민족의 성향을 알아보려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 민속복에 관한 내용을 제외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기네들의 고유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지 않다. 이제 온 지구는 마치 하나의 통일된 국가와 같은 구조로 마구 내닫고 있다. 예컨대 어느 한 지역에서 생겨난 새로운 문화는 시공을 초월하여 순식간에 전파된다. 한 지역에서 생겨난 새로운 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흡수되어 수용되고 있다. 즉 어느 한 민족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나 전통은 더 이상의 걸림돌이 아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오랜 문화적 특성은 그들이 그들일 수 있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의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민속의상에는 민족 특유의 의상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민족이건 전통 없는 민속의상이 있을 수 없고 고유한 의상 문화를 갖지 않은 민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요즈음의 의복문화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거의 서양복이 일반화 되어 있다. 민족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체성이 내재된 그들만의 옷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우리 민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복문화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수고로움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우리만의 정체성 확립에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문화향상 가운데 다른 어떤 분야의 문화보다도 걸보기 변별이 가장 쉬운 전통의복에의 주목은 초점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은 지난 '96년 문화체육부가 '한복 입는 날'을 선포한 이후부터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가세해 '97년 문화체육부는 한복을 한국의 이미지 상징물로 지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복식학회에서는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한복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99 Kosco를 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전 생활한복의 명맥이란 80년대 재야단체들의 운동복¹⁾이거나 학생운동 풍물패들의 단체복인 것이 고작이었다. 사실 우리의 의생활에서 생활한복의 위치라는 것은 일부 한정된 계층의 선호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정부에서의 권장에 힘입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최근에는 생활한복을 갖춰 입는 경우를 자주 보게된다. 회갑연이나 가족잔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이쯤이고 보니 생활한복 시장의 출현은 당연한 귀결이다.

생활한복 시장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수만도 2백여 개에 달하고 있다.²⁾ 이러한 생활한복 제작 업체들의 난무는 결국 무절제한 디자인을 산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생활한복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디자인은 대부분이 서로 베끼기 식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시점은 한국적 디자인 개발과 그 전개를 위한 작업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때이다. 언제부터인가 패션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8:강병희 외2인과 1999:성승연·배천범은 한국적 색채의 특성 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고, 1998: 천종숙, 1999:강순제 외4인, 1999:채금석, 1999: 김찬주·김인우 등은 생활한복의 구성요소나 패턴에 관하여 살펴본 후 생활한복 모형개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999:고정민·채금석, 1999:최경순·김선영, 1999:최은영 등은 생활한복의 채색이나 구매동기 등에 관련된 여러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1999: 김찬주·김인우는 일정한 시기에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전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하였다. 이 뿐 아니라 1999: 이정수·송명진³⁾은 한국 전통의 의미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려고 한 연구로서 혼례복에 관한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1세기의 入始에서 한국인이 가장 한국적일 수 있는 의복 디자인 개발작업은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주목하고

1) 재야단체인 및 학생운동가들의 단체복의 형태를 말한다.

2) TEXJOURNAL, 1999, 5, 284.

3) *김찬주, 장인우(1999) 한국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 48, 6.

*강병희외 2인(1998.3) 한국적 복식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색동의 색채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2, 3.

*천종숙(1998.4) 전통복과 생활복 디자인 구성 요소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2, 6.

*고정민·채금석(1999.7)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 5.

*최경순·김선영(1999) 한복 개량과 생활한복의 발생요인,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 1.

*최은영(1999) 생활한복 채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위험지각과 자기 이미지를 중심으로- 服食, 42.

*강순제외 4인(1999) 여자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 개발-20대를 중심으로- 服食, 44권.

*최은영(1999) 생활한복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중심으로- 服食, 44. *채금석(1999)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1), 복식, 46.

*성승연·배천범(1999) 색동의 현대적 표현을 위한 연구, 服食, 47.

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다 활용성이 높은 한국적인 생활의복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생활한복이 한국인의 평상복으로서 정착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는 생활한복 디자이너 및 제품생산업체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에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한복의 위치

이제껏 우리는 우리 옷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 생활전반의 분위기는 거의 서구식 일변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나라 발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 우리 생활방식 전반은 서구 형태로 푹 빠져들고 말았으나 한편으로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미약하나마 얼마간의 힘을 과시 할 수도 있다. 비로소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자리가 유아무야했던 시절의 옷을 벗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어리할 즈음 세계의 새로운 패션의 향방은 일찍이 동양적인 분위기를 지닌 '여자다움'이 부활하는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었다.⁴⁾ 즉 시대의 요구가 동양적인 미의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도 이제 비로소 우리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인이 가장 한국인다운 모습은 바로 한복을 입었을 때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하여 뒤켠에 넣어 두었던 우리 옷을 끄집어 낼 때이다. 이제껏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 하여 방치하였던 우리옷은 누가 무어라 한들 예복으로서의 역할은 담당할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에 적합한 옷을 개발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는다. 전통미와 현대미의 적절한 조화를 지닌 생활한복은 실용적인 우리 옷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을 뒤받침이라도 하듯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생활한복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활한복의 효시로 불려지는 '질경이 우리 옷'은 '87년부터 이미 우리 옷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개량한복' '우리 옷' '겨레 옷' 등으로 불려지던 생활한복은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93년 3월부터 한복 부문에 참여한 '여럿이 함께'는 생활한복 착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옷고름, 허리끈, 고무줄, 지퍼와 대님대신 단추 매듭고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 '돌실나이'는 '95년 3월 봄, 상품을 출하하면서 이 부문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다소 후발 주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선구자적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용비어천가'는 지난 '97년 3월부터 생활한복 부문에 참여했다. '길쌈 우리 옷'은 '89년 승복 관련 부문에 참여한 후 '97년 '길쌈'이라는 브랜드로 생활한복 제작에 본격 나서 지금은 생활한복 중견 전문업체로 성장하였다. '새내'는 지난 '88년 10월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옷 '새내'로 창업하였다. 이렇듯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업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4) James Laver 저 이경희 편역, 복식과 패션, 경춘사, 1988, 281.

- 5) TEXJOURNAL, 앞의 책, 284-294.
 6) 가시버시 황금바늘 곤지곤지: www.shoesland.co.kr
 고지나라: user.chollian.net/gojinare/home.htm
 개성상인: www.sangin.com
 늘사랑 우리 개량 생활한복 myhome.shinbiro.com/~dine
 T기획: my.netian.com/~nixon/
 빗방울: www.bangul.co.kr
 새시리: www.sesiri.co.kr
 새영세계: www.sworld.co.kr
 씨에프인: www.hangoock.co.kr
 옹고집: my.netian.com/~th122/
 우리옷살리기운동본부저바투지: my.netian.com/~uriot/
 우리옷한복타운 www.hanboktown.com
 예원: www.weddingresearch.co.kr/yewon/
 이영희: leeyounghee.yes.co.kr
 이조생활한복매무새: www.maemoobird.co.kr
 조은이한복: www.jounyhanbok.co.kr
 질경이광진점: my.netian.com/~jilkyung/
 한복사랑: dir.to/한복
 한양실크 신우실크 한올명주: mypage.channeli.net/h15ntri/
 야후코리아: #http://member.xoom.com/mooncoco
 #http://myhome.sinbiro.com/kclothes/index.htm
 6) 이주원, 한복구성학, 경춘사, 1999, 13.
 7) 이주원, 앞의책, 37-41.

- 8) 金英淑 編著,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95.
 9) 金英淑 編著, 韓國 服飾史辭典, 1988, 109 그림참조.

의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96년 12월 문화체육부가 '한복 입는 날'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97년 급속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가세한 코오롱상사는 '97년 말부터 생활한복 부문에 '한마당'이라는 브랜드로 참여하게 되었다. 백양 BYC의 자회사인 에스엔디는 '99년 초부터 참여한 생활한복 '우리나라'라는 브랜드로 좀더 인간 친화적인 건강섬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한올'은 '98년 4월 '이영희' 브랜드로 생활한복 시장에 참여하여 양장의 기능을 살려 생활한복의 고급화에 나섰다. 쌍방울은 생활한복 브랜드 '예나지나'를 '98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달맞이'는 '97년 4월부터 생활한복에 참여 뒤늦게 참여한 브랜드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후발 신예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나들잇별' 브랜드는 '97년 여름부터 생활한복에 가세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을 근거지로 활약하고 있는 '고지나라', 대구에 본점을 개점한 김홍갑 생활한복 '가비(GABY)' 등 상당수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고유 브랜드를 내걸고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복 제작업체들도 생활한복을 생산하고 있으며, 봉제공장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저바두치'라는 브랜드도 있다.⁵⁾ 게다가 생활한복 홍보를 위한 인터넷 통신상에 자체 홈페이지 개설 붐 또한 상당히 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인터넷 통신을 통해 간헐적으로 단체복 수주를 받든지 아니면 가족 소모임을 위한 차림옷 등의 주문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이와 같이 생활한복 분야에 뛰어든 브랜드의 수는 제법 많아 시장성이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IMF를 전후하여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유는 그들의 창업 계획이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브랜드 고유의 특징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생활한복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 디자인 역시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일 수밖에 없다.

2. 깃의 종류

깃은 평면구성의 의복 가운데 겉옷인 두루마기와 저고리류의 목 부위를 감싸는 것이다. 깃은 구성상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고대부분이 수직으로 곧게 세워져 있으며 앞 좌우는 편편하게 앉혀 놓은 형태이다.⁶⁾ 저고리의 디자인 가운데 깃은 목둘레에 둘러 대어 앞 가슴부분에서 여며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얼굴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눈에 잘 띠는 만 아니라 체형의 유형에 따른 한복의 각 부분별 디자인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⁷⁾

겉옷의 깃은 형태에 따라 직령(直領), 단령(團領), 곡령(曲領), 반령(盤領), 방령(方領) 등으로 나눈다.⁸⁾ 이들 가운데 단령, 곡령, 반령은 크게 나뉘 곡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직령과 방령과는 그 모양에서 다소 차이진다.⁹⁾

직령(그림1)은 옷의 깃 부분이 직선으로 곧게 생긴 것이다. 단령(그림2)은 일반적으로 두루마기의 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둥근 형태를 말한다. 단령은 깃이 목에서

많이 파인 점이 반령과 다르며 단령깃 속에 직령깃이 드러날 정도로 파져있다. 곡령(그림3)은 깃의 형태가 곡선으로 구부러진 것을 말하며 앞의 파임이 적게 파인 것으로서 여밈이 앞 중심부에 온다.

반령(그림4)은 깃이 둥근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곡령과 단령과는 구별되는 형태이다. 반령은 목이 적게 파인 둥근깃이며, 오른쪽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 방령의 형태는 모난 깃으로서 일명 목판깃¹⁰⁾이고 한다.

10) 신기철, 앞의책, 1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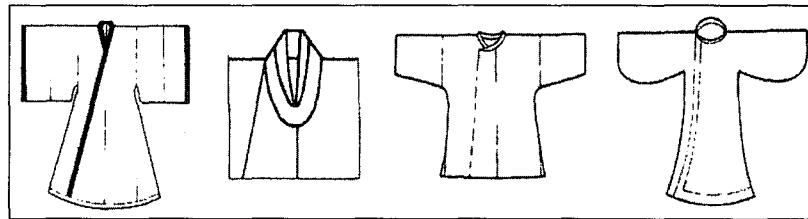


그림1. 직령

그림2. 단령

그림3. 곡령

그림4. 반령

11) 金英淑 編著, 앞의책, 95.

저고리의 깃은 세부형태에 따라 반달깃, 목판깃, 반목판깃, 동구래깃, 당코깃¹¹⁾ 등으로 불린다. 깃은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별지을 수 있는데 먼저 목판깃저고리(그림5)는 저고리에서 목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내리달아로 판 깃을 말한다. 이와같은 깃의 저고리는 조선중기까지 남녀 모두에게 유행했다. 또한 유형별 파임의 정도으로써 목판깃, 반목판깃으로 나눌 수 있다. 칼깃저고리는(그림6) 깃부리의 이음선이 반달모양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달리 반달깃이라고도 불리운다. 동구래깃저고리는 깃부리를 반원형으로 동글게하는 옷깃 만들새의 한 가지이다.¹²⁾ 다음으로 당코깃저고리(그림7)를 들 수 있는데 저고리 깃부리 부분이 버선코와 같은 모양이다. 이 모양의 저고리는 조선 중기 이후 여자들에게 유행한 겹저고리이다.

12)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상, 삼성출판사, 1993,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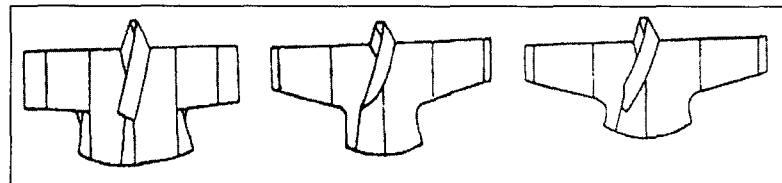


그림5. 목판깃저고리

그림6. 칼깃저고리

그림7. 당코깃저고리

Ⅲ. 기성 디자인 분석

생활한복 시장에서 이미 십수개의 상호가 그들 나름대로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착용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성디자인 분류를 실시하였다.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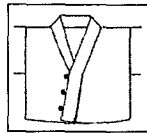
기성 생활한복 디자인의 종류별 분류를 위한 작업이다. 자료수집 실시기간은 1999년 9월 중순-10월 말까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하였다. 기성 디자인은 자료수집기간에 따라 소재 및 깃의 모양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수집기간은 9월 중순-10월말까지이므로 조사된 기성 생활한복은 추동용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자료수집 장소는 대구시내의 생활한복 매장, 전통복 제작업소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생활한복 전시장 및 전통복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종류별 디자인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잡지 및 인터넷상의 전시 디자인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수는 총 300여벌이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사진상 태나 인쇄상태에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한 270여벌을 자료로 분류하였다. 자료분류 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디자인별 분류 작업을 통하여 유사한 디자인끼리 묶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유사 디자인별 빈도를 전체 울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2. 결과분석

기성 디자인 분류는 전시된 기성디자인의 빈도를 측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된 내용의 순서는 디자인 사진, 디자인 도식화, 제시된 디자인의 빈도순이다. 각 디자인별 빈도와 이에 해당하는 분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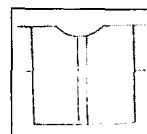
디자인 1. 직령.



| | 빈도 | % |
|-------|-----|------|
| 디자인 1 | 16 | 5.83 |
| 총 | 274 | 100 |

디자인1의 저고리는 적삼형태에 가깝다. 기성 디자인에서 가장 보기 드문 형이다. 여자 저고리의 디자인에서 보다 남자 저고리 디자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이다.

디자인 2. 깃이 없는 형



| | 빈도 | % |
|-------|-----|-------|
| 디자인 2 | 32 | 11.67 |
| 총 | 274 | 100 |

디자인 2는 저고리에 깃이 없는 형으로서 등근형과 V형이 주로 전시되어 있다. 깃이 없는 형 가운데는 등근형이 대부분이다. 깃이 없는 형은 기성복 전체에서 약 12%에 해당한다.

디자인 3. 목판깃 A

| | | |
|-------|-----|-------|
| | 빈도 | % |
| 디자인 3 | 47 | 17.15 |
| 총 | 274 | 100 |

목판깃 A의 형은 썬이 없는 형이다. 목판깃 저고리는 전형적 전통 저고리형에서 썬이 없는 형, 이와 같은 형의 저고리는 깃에 수를 놓은 것이 있으며, 깃의 코 부분이 당코깃 또는 칼깃 등의 형이 있다. 여밈의 도구는 주로 매듭이나 고름을 사용하고 있다. 여밈 도구의 개수는 대부분 2개 정도이다.

디자인 4. 목판깃 A-1

| | | |
|-------|-----|-------|
| | 빈도 | % |
| 디자인 4 | 48 | 17.52 |
| 총 | 274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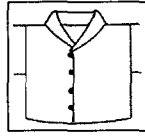
목판깃 A-1은 전통 저고리형이다. 이 유형은 기성복의 약 18%에 해당하므로 흔한 디자인이다. 이 저고리는 소매부리에 흰 거들지를 달은 것이 있는가 하면, 소매부리에 트임을 준 것도 있다. 이와같은 저고리의 배래선이 거의 직선으로 되어있다. 저고리 코 부분의 디자인은 당코깃, 칼깃 등이 있다.

디자인 5. 쌍깃 A

| | | |
|-------|-----|------|
| | 빈도 | % |
| 디자인 5 | 24 | 8.76 |
| 총 | 274 | 100 |

쌍깃 저고리는 조사된 기성복의 8.76%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여밈의 도구는 대부분 매듭으로 되어 있고 개수는 2개 에서 4개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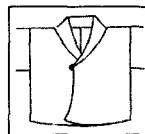
디자인 6. 쌍깃 A-1



| | 빈도 | % |
|-------|-----|------|
| 디자인 6 | 18 | 6.57 |
| 총 | 274 | 100 |

이 형의 깃은 서양복에서의 솔칼라와 거의 비슷한 형이다.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그다지 흔치 않은 디자인이라 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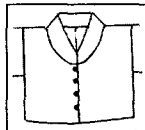
디자인 7. 칼깃



| | 빈도 | % |
|-------|-----|-------|
| 디자인 7 | 52 | 18.97 |
| 총 | 274 | 100 |

디자인7은 칼깃 저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썬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깃은 기성복 가운데 약 1/5에 해당한다. 조사된 저고리 가운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칼깃저고리는 주로 깃에 수놓은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깃 길이는 긴 것과 짧은 것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다.

디자인 8. 목판곡령



| | 빈도 | % |
|-------|-----|-------|
| 디자인 8 | 30 | 10.95 |
| 총 | 274 | 100 |

이 깃은 곡선지게 되어있는 것으로서 곡령 형태이다. 이 형은 전체의 약 11%에 해당한다. 목판곡령 가운데는 Y형에 가까운 것도 있다.

디자인 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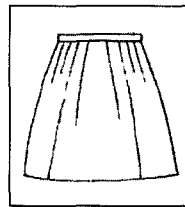
| | 빈도 | % |
|-------|-----|------|
| 디자인 9 | 7 | 2.55 |
| 총 | 274 | 100 |

기타에 해당하는 형으로는 서양복의 Chinese칼라, V-칼라, Round-칼라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형들은 모두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므로 깃에 관한 유형별 해석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13) 기성복 저고리의 디자인은 주로 깃 모양에 차이를 두고 있다.
14) 5개 품목이 전체 100 가운데 10-20%를 차지하고 있다.

디자인 1-9까지는 기성복 생활한복 가운데 저고리의 디자인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된 바에의하면, 기성복 저고리의 디자인은 상당히 다양한 편¹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위 9가지 디자인들이 대체로 고른 분포¹⁴⁾로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디자인들은 대체로 옆선이 직선형이며, 배래선은 꽤 곡선진형이며, 매듭으로서 앞을 여미고 있다. 저고리의 부분별 디자인은 대부분이 전통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디자인 4는 전시품 가운데 가장 여러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체의 약 19%에 해당한다. 이 깃은 전통 칼깃저고리 형이다. 이 형을 제외한 나머지 저고리의 깃도 전통의 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이다. 디자인 5의 예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전체에서 2.55% 차지) 있다. 디자인 5와 같은 깃은 서양복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칼라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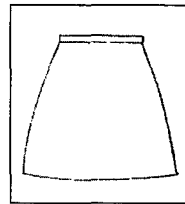
디자인 10. 치마 A



| | 빈도 | % |
|--------|-----|-------|
| 디자인 10 | 240 | 87.59 |
| 총 | 274 | 100 |

치마 A는 통치마의 형태로서 길이가 길다. 이 형의 치마는 허리부분에 주름을 2-4개 또는 잔주름을 넣은 것이다. 보통 허리부분에서 드리워 입는 것이 대부분으로 길이는 종아리까지와 발목까지이다. 이 치마는 전시된 치마 가운데 전체의 87.59%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치마의 디자인으로서는 거의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치마A는 치마단에 스란을 댄 것이 많다. 치마의 폭은 보통 6폭- 8폭으로 이루어져있다.

디자인 11. A-1



| | 빈도 | % |
|--------|-----|------|
| 디자인 11 | 3 | 1.09 |
| 총 | 274 | 100 |

이 유형의 치마는 서양복의 A-line형이다. 이와 같은 치마형은 전시품 가운데 1.09%에 불과하다. 표10의 A형이 87.59%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유형은 현재 유행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디자인11의 치마가 그리 흔하지 않음은 기성 생활한복 저고리와 썩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거나, 전형적 한복치마 형태의 고전관념의 영향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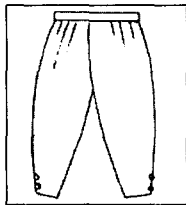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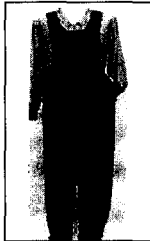
디자인 12. 조끼허리 달린 치마



| | 빈도 | % |
|--------|-----|------|
| 디자인 12 | 3 | 1.09 |
| 총 | 274 | 100 |

디자인 12는 서양복의 One-piece에 가까운 형이다. 허리선이 가슴아래까지 올라간 이 형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응답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 준다.

디자인 13. 바지



| | 빈도 | % |
|--------|-----|------|
| 디자인 13 | 16 | 5.83 |
| 총 | 274 | 100 |

디자인 13은 기성 생활한복의 하의 디자인 가운데 겨우 5%를 조금 넘고 있다. 바지의 디자인에 관하여는 요즈음의 여대생들의 바지형이 몸의 윤곽을 드러내는 형인데 반해 우리 전통형의 바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기성 바지 스타일은 요즈음 유행하는 바지 스타일과 비교해 볼 때 여대생들에게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디자인 13은 이 같은 사실에 관하여 뚜렷한 증거가 될 만하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바지 디자인에 관한 한 세심한 주의와 정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 같다.

디자인 10-13까지는 기성복 생활한복 가운데 하의에 관한 것이다. 이들 4형의 디자인 가운데 치마는 셋, 바지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의의 경우 치마가 차지하는율이 거의 압도적이며(93.05%), 이들 디자인 가운데 가장 여러번 전시되어 있는 것은 치마 A(87.59%)형이다.

기성복 치마 디자인은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전통의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이다.¹⁵⁾ 치마A형은 삼국시대 우리 고유의 裳과 裙¹⁶⁾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성복 치마의 경우 전시된 대부분의 형이 허리부분에 주름을 넣은 것이다. 주름의 수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외양이 전통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5)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1998, 36쪽, 그림 1-41 참조.
16) 裳은 전통보통치마 형을 말하며 裙은 裳에 폭을 더하여 아름답게 한 것이다. 군의 원형은 상이다.

IV. 한복디자인 선호도 조사

1.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의 구성내용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여자 대학생들의 생활한복 디자인에 관한 기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조사는 여자 대학생들의 장래 의생활에서 생활한복의 실용화 여부에 관한 것 및 유형별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에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성내용으로는 첫째, 생활한복의 실용화 여부에 관한 조사이다. 둘째, 기성 디자인의 기호 및 새로이 개발될 디자인에 관련한 기호 조사이다. 디자인 요소의 모체로서는 저고리, 치마, 바지이다. 저고리에 관련한 조사내용으로는 동정, 깃, 고름, 섶, 배래, 도련, 저고리 길이, 진동의 크기, 소재 등이다. 치마에 관련한 조사내용으로는 길이, 폭, 허리 여유 정도, 소재 등이다. 바지에 관련한 조사내용으로는 길이, 폭, 허리부분의 여유 정도, 소재 등이다.

2) 예비조사 실시

본 연구는 연구자료의 보다 객관적인 문항 작성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예비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6월중이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대학에 재학중인 만 19세-23세의 여자 대학생이었다. 예비 설문조사는 여자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률은 100%이었다. 이 가운데 불성실히 답한 것이나 분석의 자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5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자료로 적합한 문항 작성을 위하여 예비 설문조사 내용을 1999년 7월 1일부터 중순까지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3세까지의 여대생 300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1999년 8월 1일부터 1999년 9월말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다. 이 가운데 회수된 것은 298부였다.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한 것이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274부는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항목별 요인마다의 전체 응답의 빈도를 측정하여 측정된 최다수의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V. 연구 결과 분석

1. 생활한복 실용화에 관한 의견조사

표1 생활한복 실용화의 가능성 여부

| | 빈도 | % |
|---------------|-----|-------|
|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 25 | 9.19 |
|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다. | 224 | 82.35 |
| 자주 생각하는 편이다. | 23 | 8.46 |
| 총 | 272 | 100 |

표1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금의 대부분의 여대생들은(82.35%) 한번쯤 생활한복을 입고 싶어한다. 자못 충동적이나 전혀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생활한복의 생활화에 관하여 자주 생각하는 부류도 8.46%인 것으로 보아 이들 두 부류는 어떤 식으로든 생활한복의 실용화에 관한한 얼마간의 관심을 갖는 부류이다. 이들 두 부류(두 부류의 합은 전체 91%이상이다.)는 생활한복의 실용화 여부에 관한한 긍정적이라 할만하다.

표2 앞으로의 우리 옷차림의 변화 가능성 여부

| | 빈도 | % |
|---------------------------------|-----|-------|
| 서양복 차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 164 | 59.42 |
| 서양복 차림과 생활한복 차림이 골고루 섞여 있을 것이다. | 88 | 31.88 |
| 서양복 차림보다 생활 한복 차림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 20 | 7.25 |
| 생활한복 차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 4 | 1.45 |
| 총 | 276 | 100 |

표2는 여대생들의 미래 의생활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가운데 2명중 1명은 앞으로의 의생활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서양복 차림이 훨씬 더 많을 것(59.42%)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표1의 결과를 예의주시 하게 하는 결과로서 생활한복의 실용화 문제에 존재의 의문을 갖게하는 결과이다.

표3 기성 디자인의 생활한복 착용 여부 조사

| | 빈도 | % |
|--------------|-----|-------|
| 입고 싶다. | 13 | 4.76 |
| 한번쯤 입고 싶다. | 188 | 68.87 |
| 전혀 입고 싶지 않다. | 72 | 26.37 |
| 총 | 273 | 100 |

표3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활한복의 착용 여부를 묻은 것이다. 여대생들은 기성 디자인에 대하여 꽤 긍정적(68.87%)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녕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입고 싶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디자인일 경우 생활한복 착용회수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1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표4 새로운 디자인의 생활한복 착용 여부 조사

| | 빈도 | % |
|------------------------------|-----|-------|
|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입어 볼 수도 있다. | 238 | 88.15 |
| 디자인에 관계없이 입어보고 싶지 않다. | 8 | 2.96 |
| 디자인에 관계없이 우리의 것이니까 입어 보고 싶다. | 24 | 8.89 |
| 총 | 270 | 100 |

표4는 새로운 디자인에 관한 착용여부를 묻는 것이다. 기성 디자인을 한 번쯤 입어 보고 싶어(표3참조)하는 여대생들은, 표4에서의 '새로운 디자인'에서는 상당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한복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이 내재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항의 결과는 앞으로의 여대생들의 의생활이 우리의 전통을 일깨워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표5 전통복색의 인지 여부 조사

| | 빈도 | % |
|------------|-----|-------|
| 거의 모른다. | 99 | 34.86 |
| 약간은 알고 있다. | 176 | 61.97 |
| 잘 알고 있다. | 9 | 3.17 |
| 총 | 284 | 100 |

위의 표는 생활한복의 색채선정을 위하여 작성된 문항이다. 표5는 우리 고유배색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여대생들은 전통배색에 관하여 아는 듯 모르는 듯(96.83%)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5에서와 같이 전통배색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도 겨우 3.17%에 불과하므로 전통배색에 관한 지식은 거의 전무하다할 만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6에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즉 전통배색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3.17%)도,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표6에서 전통 배색 가운데 두 가지를 알고 있는 부류는 0.70%에 불과하다)도 아니기 때문이다.

표6 전통배색의 인지 여부 조사(표5에서 3번을 택한 자만 답할 것)

| | 빈도 | % |
|-----------------------------|----|------|
| 노랑저고리 빨강저고리 | 2 | 0.70 |
| 녹색저고리 빨강저고리 | 5 | 1.76 |
| 분홍저고리 남색저고리 | 0 | 0.00 |
| 노랑저고리 남색저고리 | 0 | 0.00 |
| 노랑저고리 빨강저고리+ 녹색저고리 빨강저고리 | 2 | 0.70 |
| 총 | 9 | 3.16 |

표7 생활한복 착용 시 전통배색의 선택 여부 조사

| | 빈도 | % |
|-----------------|-----|-------|
| 전통배색을 선택한다. | 89 | 32.13 |
| 전통배색을 선택하지 않는다. | 188 | 67.87 |
| 총 | 277 | 100 |

표7은 표5와 관련된 문항이다. 여대생들은 생활한복의 색채를 전통배색으로 할 것 인지의 물음에 다분히 부정적(67.87%)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통배색에 관하여 무지(표5참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막연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통배색에 관심을 보이는 부류(32.13%)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배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의 색도 조절은 효과적인 배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표8 표7에서 2번을 택한 이유

| | 빈도 | % |
|--------------------|-----|-------|
| 배색이 조화롭지 않다. | 18 | 12.25 |
| 전통배색은 입고 싶지 않다. | 10 | 6.80 |
| 나만의 독특한 배색을 하고 싶다. | 119 | 80.95 |
| 총 | 147 | 100 |

표8에서는 전통 배색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로는 색채선정은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하기 때문(80.95%)이다. 게다가 여대생들은 그네들만의 개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색채를 이용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색채의 효과를 한껏 이용함으로써 개성과 품위를 살릴 수 있다¹⁷⁾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미적인 배색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색채 표현을 위해서는 자기의 애호색(愛好色)이나 유행색에 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배색의 기본 방법을 연구하고 색채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17) 이주원, 한복구성학, 경춘사, 1999, 26쪽.

표9 생활한복 착용시 선호하는 유형

| | 빈도 | % |
|------|-----|-------|
| 원피스형 | 50 | 18.18 |
| 투피스형 | 135 | 40.09 |
| 튜닉형 | 46 | 16.73 |
| 양상불 | 44 | 16 |
| 총 | 275 | 100 |

여대생들은 생활한복의 유형 가운데 투피스 형(49.09%)을 선호한다. 이것은 기성복 디자인(디자인10참조)에서 하의가운데 치마를 선호한 경우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10 생활한복 착용 시 선호하는 배색

| | 빈도 | % |
|-----------------------|-----|-------|
| 상의와 하의의 색이 같은 것을 택한다. | 65 | 23.72 |
| 상의와 하의의 색이 다른 것을 택한다. | 209 | 76.28 |
| 총 | 274 | 100 |

생활한복의 유형에 있어서 상·하 떨어진 형을 선호하는 여대생들은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색에 있어서도 76%이상이 상·하 다른 배색을 원한다. 이것은 기성복 스타일이 대부분 투피스형이며 배색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2. 새로운 디자인 모색을 위한 Detail 기호도 조사

2-1 저고리 디자인

표1 동정 유무에 관하여

| | 빈도 | % |
|--------------|-----|-------|
| 있는 것을 택한다. | 28 | 9.86 |
| 없는 것을 택한다. | 46 | 16.20 |
| 디자인에 따라 다르다. | 210 | 73.94 |
| 총 | 284 | 100 |

동정은 서양복에서의 칼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서양복은 상의의 스타일에 따라 칼라형태를 선정할 수 있는데 우리의 동정은 형태를 선택 할 수 없다. 다만 유·무만이 있는 것이다.

표11은 동정의 유·무에 관하여 여대생들의 기호를 알아본 것이다. 요즘의 여대생들은 약 74%가 저고리 디자인에 따라 동정의 선택을 달리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우리만의 것인 전통의 동정을 되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예견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저고리 디자인에 따라 동정의 선택은 신중히 고려되어야만 할 과제이다.

표2 옷고름(여밈)에 관하여

| | 빈도 | % |
|-------------------|-----|-------|
| 고름이 있는 것을 택한다. | 27 | 10.00 |
| 매듭이 있는 것을 택한다. | 57 | 21.11 |
| 장식 단추가 있는 것을 택한다. | 186 | 68.89 |
| 총 | 270 | 100 |

여대생들은 여밈의 도구로서 약 70%가 장식단추를 선호한다. 그러나 약 5명중의 1명은 매듭을 선호하므로 이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용될 장식단추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늬를 잘 응용하여 디자인 된다면 효과적인 여밈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표3 깃의 유무

| | 빈도 | % |
|-------------------|-----|-------|
| 있는 것을 택한다. | 49 | 17.88 |
| 없는 것을 택한다. | 39 | 14.23 |
|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 | 186 | 67.89 |
| 총 | 274 | 100 |

표3은 깃에 관한 것이다. 여대생들은 생활한복 저고리의 깃에 관하여 약 68%가 디자인에 따라 깃을 달거나, 혹은 달지 않고 싶어한다. 그러나 디자인에 관계없이 깃을 원하는 경우도 약 18%에 해당하므로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것이 비록 소수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요즈음의 분위기가 전통을 중시하는 분위기이고 보면 도저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표4 쇄의 유무에 관하여

| | 빈도 | % |
|-------------------|-----|-------|
| 있는 것을 택한다. | 62 | 22.79 |
| 없는 것을 택한다. | 31 | 11.40 |
|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 | 179 | 65.81 |
| 총 | 272 | 100 |

여대생들은 쇄의 유무에 관하여도 약 66%가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저고리 디자인에 관계 없이 쇄를 원하는 부류도 약 23%나 된다. 이것 역시 서양복에서는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서 잘만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5 옆선의 형태에 관하여

| | 빈도 | % |
|-------------------|-----|-------|
| 박스형을 택한다. | 28 | 10.37 |
| 잘록하게 들어간 형을 택한다. | 75 | 27.78 |
|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 | 167 | 61.85 |
| 총 | 270 | 100 |

표5는 저고리의 전체 윤곽에 관한 것이다. 우리 고유의 저고리 옆선은 완전한 직선형이다. 기성복 저고리 옆선 역시도 직선에 가까운 형이다.(기성복 깃에서의 저고리

형 참고) 그러나 위의 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저고리의 옆선 역시,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고 싶어하는율이 약 62%나 된다. 그러나 옆선이 잘록한 것을 원하는 부류도 약 28%나 되므로 디자인에 있어 적절한 조화를 강구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6 배래의 모양에 관하여

| | 빈도 | % |
|-------------------|-----|-------|
| 직선인 것을 택한다. | 35 | 12.64 |
| 약간 곡선 진 것을 택한다. | 220 | 79.42 |
|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 | 22 | 7.94 |
| 총 | 277 | 100 |

저고리 디자인 가운데 지금까지 제시된 요소는 모두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고 싶어하는 반면 배래의 모양은 79% 이상이 부드러운 곡선을 원한다. 그러므로 배래선은 옆선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도련의 모양(표7참조) 역시 배래의 모양과 마찬가지로 82%이상이 부드러운 선을 원한다.

표7 도련의 모양에 관하여

| | 빈도 | % |
|-------------------|-----|-------|
| 직선인 것을 택한다. | 32 | 11.72 |
| 약간 곡선 진 것을 택한다. | 224 | 82.05 |
|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 | 17 | 6.23 |
| 총 | 273 | 100 |

표8 길의 길이에 관하여

| | 빈도 | % |
|--------------------|-----|-------|
| 허리선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182 | 65.47 |
| 엉덩이 중간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54 | 19.42 |
| 가슴아래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42 | 15.11 |
| 총 | 278 | 100 |

표8에서는 여대생들이 원하는 저고리 길이이다. 여대생들은 65%이상이 저고리길이는 허리선까지이길 원한다. 기성 스타일에서의 저고리 길이가 거의 허리 수준이고 보면 길이에 관한 한 별로 수정할 것이 없을 것 같다.

표9 진동에 관하여

| | 빈도 | % |
|----------------------------|-----|-------|
| 넓은 것을 택한다. | 12 | 4.40 |
| 활동하기 편리한 정도의 너비를 택한다. | 239 | 87.55 |
| 활동에 불편함이 있어도 약간 좁은 것을 택한다. | 22 | 8.05 |
| 총 | 273 | 100 |

여대생들은 87%이상이 진동의 너비는 활동하기 편한 정도를 원한다. 진동너비는 길의 디자인 및 진동 디자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너비를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일정한 수치는 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디자인마다 적절한 여유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표10 소재에 관하여

| | 빈도 | % |
|-----------|-----|-------|
| 면직물 | 73 | 25.70 |
| 견직물 | 28 | 9.86 |
| 모직물 | 18 | 6.34 |
| 인조(人造) 직물 | 8 | 2.82 |
| 혼방(混紡) | 157 | 55.28 |
| 총 | 276 | 100 |

여대생들은 저고리감으로 2명 가운데 1명이상(55.28%)이 혼방직물을 원한다. 그러나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면직물을 원하기도 한다.

2-2 치마의 디자인

표11 길이에 관하여

| | 빈도 | % |
|-----------------|-----|-------|
| 무릎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52 | 18.64 |
| 종아리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99 | 35.48 |
| 발목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128 | 45.88 |
| 총 | 279 | 100 |

여대생들은 치마길이가 약 46% 이상이 발목까지를 원하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종아리까지의 길이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은 치마의 길이에 관한 한 기성 스타일과 거의 같은 길이를 원하고 있다. 어쩌면 기성 스타일에서 얼마간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른다. 또한 원하는 저고리길의 길이가 (표8참고) 허리선까지 인 것을 보면 원하는 치마의 길이 역시 저고리와 상대적으로 긴 것을 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다.

표12 치마전체의 모양에 관하여

| | 빈도 | % |
|-------------------------------|-----|-------|
| 허리와 엉덩이가 일자형(H-Line)인 것을 택한다. | 67 | 24.91 |
| 허리에 주름을 넣은 퍼지는 형을 택한다. | 184 | 68.40 |
| 통치마의 형을 택한다. | 18 | 6.69 |
| 총 | 269 | 100 |

여대생들은 약 68%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치마형으로 허리에 주름을 몇개 (표13참고) 넣고 아래는 퍼지는 형을 원한다. 이 형은 통치마와 다른 형으로서 전체 윤곽이 서양복의 A-line에 가깝다. 이것 역시 기성복 하의 스타일 가운데 디자인10의 형과 거의 같은 형이다.

표13 허리부분의 모양에 관하여

| | 빈도 | % |
|----------------------|-----|-------|
| 많은 주름을 잡은 것을 택한다. | 39 | 14.13 |
| 몇 개의 주름을 잡은 것을 택한다. | 196 | 63.77 |
| 거의 주름을 잡지 않는 것을 택한다. | 41 | 14.86 |
| 총 | 276 | 100 |

표14 소재에 관하여

| | 빈도 | % |
|-----------|-----|-------|
| 면직물 | 72 | 26.09 |
| 견직물 | 30 | 10.87 |
| 모직물 | 17 | 6.16 |
| 인조(人造) 직물 | 15 | 5.43 |
| 혼방(混紡) | 142 | 51.45 |
| 총 | 276 | 100 |

여대생들은 51%이상이 생활한복 치마감으로 혼방직물을 원한다. 5명가운데 1명 정도는 면직물을 원한다. 이 같은 결과는 저고리감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2-3 바지의 디자인

표15 길이에 관하여

| | 빈도 | % |
|-----------------|-----|-------|
| 발목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250 | 89.29 |
| 장단지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13 | 4.64 |
| 무릎까지의 길이를 택한다. | 17 | 6.07 |
| 총 | 280 | 100 |

여대생들은 약 89%이상이 바지길이는 발목까지를 원한다. 요즘의 서양복 바지길이 대부분 발목까지와 장단지까지의 길이¹⁸⁾인 것을 감안한다면, 생활한복 바지의 길이는 다소 긴 것 일색이라 할 수 있다.

기성복 디자인에서 바지형은 6%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바지를 선택하는 경우 원하는 바지길이는 약 90%이상이 발목까지의 길이를 원한다.

표16 바지모양에 관하여

| | 빈도 | % |
|---|-----|-------|
| 전형적인 한복바지 모양을 택한다. | 26 | 9.25 |
| 엉덩이 부분은 넓고 바지부리는 전형적인 서양복 바지부리 모양을 택한다. | 68 | 24.20 |
| 엉덩이 부분은 서양복 바지모양이며 바지부리만 한복바지 모양인 것을 택한다. | 187 | 66.55 |
| 총 | 281 | 100 |

여대생들은 66%이상이 원하는 바지 모양으로 서양복 바지형에 바지부리만 한복바지 형인 것을 원한다. 게다가 서양복 바지형에서 엉덩이 부분이 넓은 것을 택하려는 부류도 24%나 된다. 그러므로 저고리와 어울리는 바지형을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바지 디자인 개발의 어려움이라 하겠다.

18) 요즘 유행하는 진바지의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하여 입던 청바지를 7부나 8부의 길이로 자른다는 것은 현금의 바지 스타일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 2000년 3월 21일 39면, 박지원의 멋&맛.

표17 소재에 관하여

| | 빈도 | % |
|-----------|-----|-------|
| 면직물 | 62 | 22.79 |
| 견직물 | 5 | 1.84 |
| 모직물 | 25 | 9.19 |
| 인조(人造) 직물 | 22 | 8.09 |
| 혼방(混紡) | 158 | 58.09 |
| 총 | 276 | 100 |

여대생들은 58% 이상이 바지감으로서 혼방직물을 원한다. 바지감에 대한 선호는 치마와 같다. 게다가 면직물을 원하는 부류도 약23%나 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여대생들은 바지감으로서 견을 선택하는 부류가 저고리(9.86%)나 치마(10.87%)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1.84%)는 점이다. 이것은 바지의 기능은 치마나 저고리보다 실용적인 것이므로 바지의 소재 역시 실용적인 것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활한복 실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것이다. 생활한복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즈음의 여대생들은 생활한복 실용화에 관하여 꽤 적극적인 편이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에 강한 관심을 가지며, 실제로 착용할 의사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대생들이 원하는 생활한복의 부분별 구체적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여대생들은 주로 상·하가 서로 배색된 투피스형을 선호한다. 또한 여대생들은 전통배색을 수동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배색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둘째, 여대생들은 저고리의 동정, 깃, 설 등의 유무에 관해서도 저고리의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 이것에 관하여는 기성복에서조차 이미 저고리의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요소에 관한 한 기성복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설이 달리지 않은 칼깃형이다. 이 형의 저고리는 저고리 전체 디자인의 약 1/5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고리의 새로운 디자인에서는 이들 요소의 유무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셋째,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저고리의 옆선과 배래선은 부드러운 곡선이며, 좋아하는 여밈의 도구는 장식단추이다. 그러나 기성복 저고리의 옆선은 대부분이 직선형이며, 여밈의 도구는 주로 매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고리 옆선 디자인과 여밈의 도구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 시 전통의 범위 내에서 변형의 모를 한껏 발휘해야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넷째,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저고리 길이는 허리선까지이며, 좋아하는 진동너비는 활동하기 편리한 정도의 너비이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기성복 디자인에서도 거의 자주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에 관한 한 디자인 개발은 그다지 필

요하지 않다. 게다가 진동에 관한 것은 '너비'보다 '모양'에 관한 조사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치마형은 허리에 2-4개 정도의 주름이 잡힌 A-line형이며, 좋아하는 치마길이는 발목이나 종아리까지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기성복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이므로 디자인 개발시 거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곱째,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바지형은 서양복 스타일에 바지부리만 한복바지 형이다. 그러나 기성 스타일 가운데 바지에 해당하는 율은 전체의 겨우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디자인 개발시 바지에 관한 한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대생들은 바지를 선택할 경우, 선호하는 형은 서양복 스타일에 바지부리만 한복바지 형이다. 그러므로 바지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덟째, 여대생들은 2명 가운데 1명 정도로 저고리, 치마, 바지감으로 혼방직물을 원한다. 반면 면직물을 좋아하는 경우는 5명 가운데 1명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조사된 내용은 생활한복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이다. 그러나 본 조사내용 가운데 각 부분별 디자인은 제도상의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디자인 모형 작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김찬주, 장인우(1999) 한국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 48, 6.
- 이정수, 송명전(1999) 한복을 응용한 혼례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 49.
- 강병희외 2인(1998.3) 한국적 복식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색동의 색채분석, 한국 의류학회지, 22, 3.
- 천종숙(1998.4) 전통복과 생활복 디자인 구성요소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2.6.
- 고정민 · 채금석(1999.7)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 5.
- 최경순 · 김선영(1999) 한복개량과 생활한복의 발생요인,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
- 최은영(1999) 생활한복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위험지각과 자기 이미지를 중심으로- 服食, 42.
- 강순제외 4인(1999) 여자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개발-20대를 중심으로-服食, 44권.
- 최은영(1999) 생활한복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중심으로-服食, 44.
- 채금석(1999)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1), 복식, 46.
- 성승연 · 배천범(1999) 색동의 현대적 표현을 위한 연구, 服食, 47.
- 金英淑 編著,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95.
- 조선일보 2000년 3월 21일 39면, 박지원의 멋&맛.
- James Laver 저, 이경희 편역, 복식과 패션, 경춘사, 1988, 281.
- 이주원, 한복구성학, 경춘사, 1999, 26.
- 金英淑 編著, 韓國 服飾史 辭典, 1988, 109.
- 유희경 ·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1998, 36.

Abstract

A Design Research for the Practical Use of College Women's Casual Hanbok

Jang-Hyang, Kim*

*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College

This study is the design research for the practical use of Casual Hanbok. The conclusion of basic research for Casual Hanbok design reads as follows.

Today's college women are fairly positive to the practical use of Casual Hanbok. Especially, they are strongly interested in the new design and have the active intention to wear it on actually.

The concrete design of every parts of Casual Hanbok which is wanted by college women is as follows. Firstly, college women like well matched two-piece dress style in colors. And they want to decide the coloration independently than to follow the traditional coloration passively. Secondly, according to the design of jacket, sometimes they like the presence of a collar, a collar strip, a gore etc. and at other times they like absence of them. Thirdly, the side line of jacket they like and the seam line of sleeve they like is smoothly curved one and the adjusting means they like is a fancy button. Fourthly, the length of jacket they like reaches to their waist and the width of an armhole they like must be convenient for moving of arm. Fifthly, one out of two college women likes mixed spinning fabrics as material for jacket, skirt, pants. In the other hand, one out of five college women likes cotton. Sixthly, the skirt style they like is A-line one having from two to four gathers on the waist and the length of skirt they like reaches to their ankle or calf of the leg. Seventhly, the pants style they like is the western style but the hem line of pants is the korean traditional pants style.